한국형 펫티켓 교육 ‘KCMC’를 아시나요

〈Korea Canine with Mannered Citizen〉

이웅종 교수, 반려인 교육에 앞장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중요한 것은 펫티켓 문화의 정착”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삭애견훈련소에서 펫티켓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지도하는 이웅종 교수는 “펫티켓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사진제공 | 펫뉴스

최근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며 ‘펫티켓’ 논쟁이 다시 뜨겁다. 맹견뿐만 아니라 소형견도 목줄을 해야 함에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과 함께 방치하는 반려인이 종종 눈에 띈다. 펫티켓의 부재인 것이다.

펫티켓의 부재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숫자는 급격히 늘었으나,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펫티켓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특히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우리 아이는 순해요’ 등 자신의 반려동물을 도가 지나치게 보호하는 반려인들 때문에 날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문제를 일으킨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했으며, 사고 당일도 집 문을 열어놓았다가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문제를 일으켰다.

선진국에서는 펫티켓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을까. 미국은 AKC(American Kennel Club)에서 CGC(Canine Good Citize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매너를 가진 반려견과 책임감 있는 보호자에게 주는 상이며, CGC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자격을 수여한다.

CGC 프로그램이란 인간사회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반려견이라는 말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애견협회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1989년 개발했다. CGC는 시행후 매년 10만 두 이상이 자격을 취득한 미국애견연맹 최고의 반려견 교육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CGC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자, 반려견의 기초 교육을 통해 목줄로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초 트레이닝을 하고나면 독스포츠, 어질리티, 프리스비, 독댄스 등 난이도 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CGC 교육은 매너견과 매너 있는 보호자가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반려동물의 천국 독일은 세계 최초로 2002년 헌법에 동물보호국가임을 규정했다. 독일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사회화 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격성을 지닌 견종과 공격성 성향을 지닌 견종은 공격 테스트 합격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펫티켓 교육을 위한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Korea Canine with Mannered Citizen, KCMC)’을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자격이나 연령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KCMC에 참여하는 모든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KCMC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펫티켓 문화의 정착”이라며 “펫티켓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교육받는 반려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건국대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4기를 모집한다. 최고위 과정을 밟게 되면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강사진에게 교육받을 수 있다. 더불어 반려동물산업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 펫뉴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모집

사립대학교 중 유일하게 서울 소재 수의과대학을 가진 건국대학교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4기를 모집한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반려동물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3조 원 규모였던 반려동물 시장은 2027년까지 6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인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건국대는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 경영자가 갖추어야 하는 트렌드 파악, 경영 전략, 영업 전략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다. 이론부터 실제까지 핵심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반려동물 산업 일꾼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최고위 과정을 거치면서 수강생들은 각 분야의 최고 교수진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한 심도 있은 이론 교육과 필드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 강사로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설채현 서울청담씨티칼리지 디렉터와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등이 있다. 수업을 들으며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킹을 갖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자격을 부여해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최고위 과정 이수 후에도 교수들과 연결을 통해 사업 방향을 자문하는 등 산학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나고 있다. 최고위 과정 문의는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반려동물산업 인력 양성…지자체가 뛴다

대구 남구 등 전문가 과정 진행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주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려동물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나섰다. 반려동물산업 인력을 양성해 관련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각오다.

대구광역시 남구는 ‘2020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으로 ‘반려 길동무 만들기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동물 서비스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생학습형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다.

대구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 ‘함께하자냥’ 주관하에 반려동물 생활미용 기술습득 ‘펫생활미용지도사’ 과정과 반려동물 수제음식 만들기인 ‘반려동물 수제음식지도사’ 과정 등 2개 프로그램을 20회로 진행한다. 지역 주민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일 펫생활미용지도사 과정이 시작됐다.

각 지자체들이 반려동물산업 관련 인력 양성에 뛰어들고 있다. 사진제공 | 펫뉴스

경기 광명에서는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이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행동교정, 기초훈련법, 응용훈련법, 실습 등의 커리큘럼의 진행된다. 교육수료 후에는 반려동물관리사로 취업 알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도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40명을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9~11월 SETEC 컨벤션 센터와 동물병원, 애견미용학원 등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며, 한국반려동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제419980144668호

YouTube ‘1조원 기부 TV’(1, 2부) 동영상 시청 후 문의 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개, 고양이)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 / 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아!
썩을 때로 썩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왈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 인류, 반려동물까지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의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렛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자본공유앱APP, K-비즈, K-플렛폼
☐ 선착순 자동릴레이기부 품앗이계

Hiubuntu 하이우분투(주) 1644-6733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세계교회 대혁신 투사 총괄전도사 꼿꼿 류창열 된장
● 서울 꼿꼿 010-2248-0815 / 황비 010-5647-5428 / 백인조 010-6462-6712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김영배 010-8290-8801
강영석 010-3274-5289 / 강신오 010-2209-1142 / 이순지 010-9725-2789 / 최득남 010-5661-4167 ● 부산 김상주 010-9852-6452 / 이채영 010-7135-2369 / 백삼석 010-7309-1000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완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류영순 010-6650-7567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희정 010-7712-2202 / 김용한 010-3742-5998 / 전달만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이주환 010-4489-9789 / 박병두 010-8259-9960
김신호 010-6543-3126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 장인태 010-7586-7985 / 이철배 010-3572-4616 ● 천안 김혜덕 010-6258-3510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 1888 ● 이천 하천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베드로 010-7610-9936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